

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연구*

Mid & Long-term Library Pla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braries

조 현 성 (Hyeon-Seong Jo)**, 전 영 선 (Youngsun Jeon)***,
김 소 연 (Soyeon Kim)****, 김 태 경 (Taekyung Kim)*****,
최 재 황 (Jae-Hwang Choi)*****

< 목 차 >

I. 서론	IV. 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II. 선행 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례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화해협력]-[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중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 도서관, 도서관 교류협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s and program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pecifically, it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in the library area and to present library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that can be promoted in the [tight perio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eriod], and [South and North confederation period] through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expert advice. In this study,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were divided into three projects that should be prepared by South Korean libraries, by direc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braries, and by conducting with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conducting program periods, 8 major programs and 33 unit tasks were also propos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suggested the need for sector-by-sector, step-by-step exchange and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systems to promote effe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establishing the formation of consensus within libraries, finding field-oriented agendas, and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of North Korea libraries for librarians.

KEYWORDS: North Korean Librarie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 * 본 연구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2021)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jhs@kcti.re.kr / ISNI 0000 0004 6763 5799) (제1저자)
-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multifriend@naver.com / ISNI 0000 0000 4917 3309) (공동저자)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 연구원(kimsoy@kcti.re.kr) (공동저자)
-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서기관(kimtaekyung@korea.kr / ISNI 0000 0004 7392 7835) (공동저자)
-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 ISNI 0000 0004 6002 341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2년 5월 25일 • 최초심사: 2022년 5월 26일 • 게재확정: 2022년 6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25-42,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25>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986년 5월 6일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 14년 만에 문화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베를린에서 전문 15개조로 된 양국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문화협정에는 도서관 분야(제6조), 문서 분야(제7조), 학술분야(제8조) 등 포괄적인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통일원 통일정책실, 1993). 실제로 동서독간 문화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상당량의 출판물 및 자료보존소 자료가 상호 간에 교환 및 반환되었고, 양독간의 이념 차이와 이질감의 해소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한상완, 2000).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는 교착상태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이 합의서의 채택 이후 부문별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교류의 가능성이 구체화 되었다(정분희, 1993).

분단국가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와 학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도서관을 통한 남북한 상호 비정치적인 학술, 과학·기술 정보교환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교류협력을 확산하여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도서관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연하게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도서관 교류협력의 의제 발굴은 남북한 신뢰 회복과 유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문화 및 학술분야의 통합적, 통섭적 연구에 있어 전환점 역할을 할 것이다(박미향, 2017).

최근의 문화분야 남북 교류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연단 상호 방문 공연(2018), 만월대 공동조사(2007~2018) 등이 있지만, 2019년 이후 남북 문화교류 사업은 현재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승인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건이었다. 2018년~2019년 통일부 승인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 9건은 체육 분야에서 7건, 문화유산 분야에서 1건, 공연예술 분야에서 1건만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도서관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다양한 주체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교류협력 사업들이 제안 또는 계획되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교류협력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일본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북한의 조선도서관협회에 여섯 가지의 교류협력 방안(〈표 2〉 참조)을 제안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2005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 역시 남북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008년은 남북관계가 경색기에 들어선 시점이며, 2019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국제정세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였다. 남북관계가 좋아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면 적어도 한국도서관협회의 제안 가운데 몇 가지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기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점에서는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서관 교류협력이 많지 않다.

둘째, 남북 도서관 교류의 제안(계획)은 실행계획보다 정책 어젠다 성격이 강해서 구체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관련 연구자의 주장과 제안은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수립했어야 했지만 도서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에 ‘남북교류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18년이었던 것에서 보듯이 도서관계에서는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에 관심을 늦게 가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남북 도서관 교류에 대한 정책연구가 많지 않았고, 일부 정책연구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 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제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 영역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중단기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과 통일한국 이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 정책의 공간을 국내에서 한반도 전체로 넓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도서관은 물론 다른 문화시설을 활용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도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 조사와 표적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구분된다. 문헌 조사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언어, 문학, 문화예술(공연, 미술), 문화콘텐츠(출판, 영화, 방송), 종교, 체육 등에서 과거 수행된 남북 문화 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국내 도서관 정책 및 현황자료, 북한 문헌(『도서관일군 참고자료』, 『로동신문』 등), 유튜브를 포함하는 국내외 방송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문헌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사업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한 도서관의 정책은 제1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과 그 이후를, 북한 도서관의 정책은 김정은 시대(2012~) 이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표적 집단 면담(FGI)은 총 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 공공도서관 담당자(6명),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관의 관계자(6명),

통일교육 및 북한 사회문화 연구자(3명), 북한 이탈주민(북한도서관 사서 2명, 북한도서관 이용자 2명)들이다. 면담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자세한 일시, 장소, 피면담자 및 소속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 집단 면담 내용의 규모와 범위, 필사 자료의 방대함, 그리고 방향성 제시라는 연구 목적을 감안하여 면담 결과의 구체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대안으로 연구진은 19명 전체의 면담 내용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을 통해 남북 도서관 간 중장기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 표적 집단 면담 일정과 대상자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담당자(6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07.2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A	○○ 공공도서관장	4명
		B	○○ 공공도서관장	
2021.07.28	Zoom 회의	C	○○ 공공도서관장	4명
		D	○○ 공공도서관장	
2021.10.19	○○도서관 회의실	E	○○ 공공도서관 주무관	3명
		F	○○ 공공도서관 팀장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관 관계자(6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11.15	Zoom 회의	G	통일부 직원	3명
2021.09.04	Zoom 회의	H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 참여자	2명
2021.11.02	광화문 회의실	I	전 북한 특수자료실 사서	2명
2021.11.09	Zoom 회의	J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3명
		K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 참여자	
2021.11.10	Zoom 회의	L	방송국 담당자	3명
통일교육 및 북한 사회문화 연구자(3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09.04	Zoom 회의	M	대학교수	2명
2021.09.13	Zoom 회의	N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5명
2021.11.05	통의동 회의실	O	대학 강사	4명
북한 이탈주민(4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08.2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P	전 북한 도서관 사서	4명
		Q	전 북한 도서관 이용자	
2021.08.2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R	전 북한 도서관 사서	4명
		S	전 북한 도서관 이용자	

II. 선행 연구

정분희(1993)는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종합목록을 작성하고, 둘째, 남북한이 상호 이용 가능한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를 제도화하며, 셋째,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일된 목록규칙을 작성하고, 넷째, 학문연구의 중요한 성과인 학위논문을 양측이 상호교환 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며, 다섯째,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통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왕근(2007)은 북한 도서관계가 정보기술, 전자도서관 개발 및 고도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종합대학 도서관은 가칭 KPMARC 및 기술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선십진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 정리에 있어 더블링크어, MARC21 등 국제표준에 관심이 많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표준 MARC 공동개발 및 이용 등 도서관의 정보화, 표준화, 규범화를 위한 사업은 체제, 이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동 사업이라는 것이다.

박미향(2017)은 남북간 직접적 공동 세미나 개최가 어렵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유관 협의체나 기업 등과 협력하여, 북측 관련 실무자 및 책임자 등과 제3국에서 미팅하거나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구체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 트렌드 소개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적 교육내용과 현안 이슈를 기반으로 실질적 정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완(1994)은 출판물 교류에 있어서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한의 북한 신문·방송의 국내 소개 확대, 둘째, 북한의 고전국역, 동의학, 농기구학, 고고학분야 등 전문분야 도서구입 실시, 셋째, 탈이념적인 과학기술 및 학술 분야의 전문 서적과 정기간행물, 인기 소설, 오락 서적의 전시회 상호개최, 넷째, 순수학문 및 기초과학 분야, 자연경관 및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체육·문화행사 자료집 등 공동 제작 출판, 다섯째, 과학·기술 용어사전 및 교과서 공동 편찬이다.

정분희(1993)와 한상완 외(1996)는 특수자료의 개방정책을 확대하여 북한자료를 대폭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국내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면 자료라는 매개물을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 그들의 의식구조, 현황, 실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분희(1993)는 특수자료 분류기준(5개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분류기준(5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각 특수자료 취급기관별로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특수자료의 분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셋째,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상황 의존적이므로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특수자료의 분류기준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줄여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특수자료'를 없애므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차선의 방안으로 기존의 기준들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진(2007)은 남북한의 도서관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다.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업무에 대한 조사와 도서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 문화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틀로서 '남북문화협정(가칭)'이 체결될 때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남북한 도서관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도서관 협력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협정의 조항 속에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 남북한 간의 도서관·정보자료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완(1995)은 통일 대비형 도서관 정책과 제도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인적 교류를 통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남북한 간 정보자료의 적극적인 교류, 학술정보교류망 구축과 실현,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변혁, 도서관 시설 장비류의 현대화와 정보기술의 이양 및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다.

정연경(2014)은 통일이전 '협력 단계'에서 국립 중앙도서관 중심의 대응 방안을 총 5개 부문의 13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부문은 남한 내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2015~2016), 국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2017~2018), 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15~2018) 3개 전략이다. 둘째,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2015~)와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2015~) 2개 전략이다. 셋째,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부문은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2015~2016), 북한 사서대상 전문 교육 추진(2017~)으로 4개 전략이다. 넷째,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부문은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2015~)과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2017~)으로 2개 전략이다. 다섯째,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부문은 북한 소장

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2017~)과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2017~)의 2개 전략이다.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 북한도서관 관련 연구는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둘째는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셋째는 출판물의 교환을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넷째는 특수자료(북한자료)의 이용 확대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제도 및 정책적 고려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이다.

Ⅲ.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례

과거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사례로는 일본 도서관대회에서의 간담회(2000),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의 평양 방문(2005), 2005년부터 시작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1. 일본 도서관대회에서의 간담회

남북한 도서관계 대표의 첫 만남과 최초의 대화는 2000년 10월 24일 일본의 제86회 전국도서관대회(오키나와현 나하시) 진행 과정에서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의 초청만찬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 인사는 이두영(한국도서관협회장), 조원호(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현주(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였고, 북측 인사는 최희정(인민대학습당 총장), 정태연(인민대학습당 실장, 조선도서관협회 서기장), 한성빈(인민대학습당 대외교류처 부원)이었다. 이 간담회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당시 구상해 왔던 여섯 가지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표 2〉 참조).

〈표 2〉 남북 도서관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제시된 교류협력 사업(2000년, 2005년)

2000년 10월 일본 오키나와 한국도서관협회-조선도서관협회 간담회	2005년 12월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 관계자 방북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도서관 현황의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등의 개최 • 소장 자료 목록 등 서지자료의 교환 •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류와 공동 이용 • 각종 도서관 자료의 전시회 개최 •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지원 • 2006 IF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및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남북 도서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북한 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古典籍) 및 자료목록전시회 • 남북 도서관 간 고전적 조사, 수집, 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 북한 도서관 백서 발간 •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 통일 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

남북한 도서관협회 대표들의 역사적인 만남과 대화의 시간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27일 아침까지 3박 4일의 일정이었다(이두영, 2000). 이후 2002년 글래스고우(스코틀랜드), 2004년 베를린(독일)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모두 검토 단계에서 끝났고, 제안 사항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송승섭, 2020).

2.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2006WLIC) 조직위원회의 평양 방문

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맞춰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회원국인 북측 도서관 관계자를 공식 초청하여 남북 도서관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2005년 11월 30일에서 12월 3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측의 방문자는 신기남(조직위원장), 한상완(집행위원장), 이현주(재정분과위원장), 박왕규(총괄분과위원)였고, 북측의 주요 면담자는 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종혁(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인민대학습당 총장, 조선도서관협회 회장) 등이었다(한국도서관협회 내부자료).

평양 방문의 성과는 2006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합의 도출과 남북한 도서관계 관련 여덟 가지 교류사업(〈표 2〉 참조)을 제안하여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다는 점이다(송승섭, 2020). 그러나 정치 환경에 좌우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남북 교류사업의 취약성, 그리고 조직의 물적 기반과 정치적 관심 및 지지 부족으로 큰 실효성 없이 제안만으로 종결되었다.

3.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간 협상 기간을 거쳐 2007년까지 진행된 남북 도서관의 유일한 교류협력 사업이다(조왕근, 2007). 이 사업은 남측(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성공회대학교)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 김일성종합대학) 간 공동사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교육 현대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내용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운영시스템 및 설비 지원,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소장자료의 목록 및 원문 DB 구축 작업, 남북 대학 간 지속적인 콘텐츠 교류, 도서관 운영 관련 공동개발 및 교류 등이다. 남측의 역할은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 출입 관리, 바코드 발급, 학생증 발급 시스템 제공 등이었고, 북측의 역할은 구축된 서지 목록과 공개 가능한 원문 콘텐츠 제공, 저작권 양도를 통한 구축된 서지 및 원문 콘텐츠 공동 활용, 구축된 서지정보와 원문 활용을 위해 남측에 미리 서버 운영, 서지 및 원문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부담 등이었다(조왕근, 2007). 그러나 오픈 행사까지 했음에도 실제 활용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 사업은 도서관 간 직접 교류로 보기는 어렵지만, 완결되지 않은 최고 수준의 남북 교류협력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남한 인력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직접 가서 북한 인력과 협력했고, 남측은 시스템 비용을, 북측은 서지 및 원문구축 비용을 공동 부담했으며, 남한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IV. 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1. 연구의 기본 방향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류협력 방안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변화의 대응으로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남한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 및 같은 민족이란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통일 인식의 제고는 의미 있다고 판단되며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중요하다. 북한 사회에 대한 변화의 대응은 미래원(시·군에서 개건 현대화되는 복합형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북한 도서관의 변화에 걸맞은 과학기술 중심의 도서관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 시각에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남북이 함께 접근 가능한 제3국의 도서관을 통해 교류협력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과 교류를 하는 제3국의 도서관을 활용하여 제3국에서 학술회의 및 도서관계 인력 만남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일본 조선대학, 중국 연변대학 등과 공동으로 남한도서관-북한도서관-조선대학도서관(또는 연변대학도서관) 등과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에 근거한 교류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제1차~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지금까지 도서관계에서 제안한 각종 사업의 분류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의미를 남북 직접 교류에 한정하지 말고,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미래원의 역할과 활동을 참고하여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때, 1982년 개관한 인민대학습당뿐만 아니라 2016년 김정은 시대에 개관한 과학기술전당까지 포괄하여 국가 대표도서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은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분야 협력 사업을 문화, 체육, 학술 등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3〉 참조). 사회문화는 예술(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 문화콘텐츠(음

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체육, 그리고 연구(학술)를 의미한다.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북도서관 간 교류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라는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중심축 또는 허브가 될 수 있다.

<표 3>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2015)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다섯째, 남한 도서관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현재 같은 경색 국면에서는 남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서관사서 대상 교육의 실시 등이다. 남한 도서관 사서의 북한 문화 및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남한의 인식변화, 국제제재 등을 감안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해방 이전 자료 중 북한에만 있는 자료, 남한과 판본이 다른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문화콘텐츠 창출이 가능한 자료 교류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별 문화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세계적 기준(실제 필요한 기술 및 경영 방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조현성 외, 2020, 339) 전자도서관, 도서관 경영, 도서관 관련 기술 적용 등을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 방안에서는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단계이고, [남북연합] 단계는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고 남북연합을 과도 체제로 설정하는 2체제, 2정부의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국가] 단계는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단계이다(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현재는 [화해협력] 이전 단계인 경색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해협력] 이전 단계인 현재(경색기)부터 준비해야 할 사업과 [화해협력] 단계에서 시행할 사업에 집중하였고, 단위 사업의 시점에서 일부 [남북연합] 단계를 포함했다. [통일국가]가 완성되면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은 의미가 없고 이 시기는 한 국가가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토론회 자료 등의 분석과 표적 집단 면담, 전문가 자문의 과정을 거쳐 남북 도서관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남한 도서관의 준비, 실질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 그리고 제3국과 함께하는 남북 도서관 교류의 3범주와 8개의 주요 사업, 그리고 총 33개의 단위 과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범주(《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해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업으로, 직접 북한과 교류를 시도하지는 않지만 남북 도서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두 번째 범주(《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는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 범주(《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표 4>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3 범주	8 주요 사업	33 단위 과제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개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3개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3개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5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4개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5개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	6개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2개

가.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은 남한 도서관이 북한 도서관과 직접 교류 시도를

하지는 않지만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방안이다. 광의의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에 대한 네 가지의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표 5〉 참조).

첫째,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 조직 구성',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남북 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 제안'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단위 사업들의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현재 당장 시행할 수 있다.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 제안'은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8-2013)에 "남북한 자료교류협정 체결"로 제안된 사업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은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세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남북한 국가문헌 종합목록 공동작성"과 "남북한 자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을 제안된 바 있다.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은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사업의 선행 성격이 있다.

셋째,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는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세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은 남북 문화 교류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하고,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는 현재 입수 가능한 북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남북 도서관의 기본용어 조사 및 연구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제시된 사업이다.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는 북한의 분류표 입수(구입) 또는 기존의 북한 연구 논문집(예를 들면 김일성종합대학보 등)의 분석을 통해 남한 도서관 연구자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이다.

넷째,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는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도서관의 북한도서 전시회 개최',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 실현 가능하며,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공간을 남한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 도서, 북한 문학 작품, 북한 영화를 활용하여 북한 문화의 이해를 돕고, 접경지대 역사문화 기록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적 통일문화 형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표 5〉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의 주요 사업과 단위 과제

주요 사업	단위 과제	사업 시점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 조직 구성’	경색기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경색기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경색기, 화해협력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화해협력
	‘남북 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 제안’	화해협력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경색기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경색기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경색기, 화해협력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경색기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경색기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경색기, 화해협력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경색기
	‘도서관의 북한도서 전시회 개최’	경색기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경색기, 화해협력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경색기, 화해협력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경색기

나.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사업 방안이며, 보통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이다. 이 방안은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과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두 가지의 주요 사업으로 구분된다(〈표 6〉 참조).

첫째,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은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네 가지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화해협력] 단계에서 진행될 사업들이다.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현재(경색기) 준비해서 [화해협력] 단계에 시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역시 경색기인 현재 콘텐츠의 확보 및 실물 입수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화해협력] 단계에 남한 콘텐츠(과학, 수학 등)의 북한 도서관 제공, 영인본(복각본) 제작, 콘텐츠 상품화 지원을 본격 실시할 수 있다.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는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국가 문화재급 고전적의 복제 및 영인”으로 포함된 바 있다.

둘째,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은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은 남북 도서관의 직접 교류사업이 아닌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과 체계 구축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및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곳에 포함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업들은 모두 [화해협력] 단계에서 가능하다.

〈표 6〉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의 주요 사업과 단위 과제

주요 사업	단위 과제	사업 시점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화해협력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화해협력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화해협력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화해협력, 남북연합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경색기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화해협력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화해협력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화해협력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화해협력

다.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는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제3국과 함께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 방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와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사업」 두 가지의 주요 사업으로 구분된다(〈표 7〉 참조).

첫째,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는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지원’ 여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화해협력] 단계에 가능한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경색기부터 [화해협력] 단계 초반에 진행 가능한 사업들이다. 남북 도서관 간 직접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도서관과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현재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은 도서관 교류의 공간을 한반도 내에서 전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둘째,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는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두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들은 검색기와 [화해협력]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는 남한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의 검색기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는 제3국을 통한 도서관 및 학술 교류를 바탕으로, [화해협력] 및 [남북연합] 단계에서 도서관이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표 7〉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의 주요 사업과 단위 과제

주요 사업	단위 과제	사업 시점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검색기, 화해협력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검색기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검색기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검색기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검색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화해협력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화해협력, 남북연합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검색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남북관계 검색기와 [화해협력] 단계까지이며, 그 이유는 지금의 검색기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과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는 검색기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은 [화해협력] 단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남한은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단계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화해협력] 단계의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검색기의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연구에서 검색기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과 [화해협력] 단계의 사업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연합단계의 사업 제시는 쉽지 않다. 이 경우, [화해협력] 단계 사업의 일부는 계속 또는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검색되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서관계가 해야 할 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였다. 현재 도서관계에서 남북교류를 위해 할 일들을 제시해야 [화해협력] 단계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터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도서관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의 준비, 실질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 그리고 제3국과 함께하는 남북 도서관 교류의 3범주와 8분야에 걸친 주요 사업, 그리고 총 33개의 단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이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마스터플랜이 될 수는 없지만, 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의 도(都)도서관과 남한의 지역대표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의 과학기술전당과 남한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관중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남한 도서관계의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교류협력이 도서관 직무와 사업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을 추진하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개발의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및 개선도 필요하다. 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국가도서관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 대표성을 지닌 추진체계를 통해 전략적 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광진 (2007).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도서관문화, 48(10), 2-3.
- 박미향 (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17-340.
- 송승섭 (2020. 11. 10.). 도서관계의 남북교류: 과거, 현재, 미래.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제2차 도서관정책포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서울.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9DPLRzn1okI>
- 이두영 (2000).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의 첫 걸음. 도서관문화, 41(6), 43-47.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 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연경 (2014). 통일대비 남북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조왕근 (2007. 4. 18.).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례: 한양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 현대화사업.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한국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 조현성, 이성우, 성문정, 전영선 (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통일부 (1994).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출처: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3). 문화협정.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 한상완 (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4-15.
- 한상완 (1995).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6(5), 13-32.
- 한상완 (2000).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도서관과 학술정보 교류 협력 방안. 국회도서관보, 37(5), 3-29.
- 한상완, 김태수, 전현준, 이승채 (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89-12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n, Sang-Wan (1994). Cooperation in the library sect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LA Journal, 35(1), 4-15.
- Han, Sang-Wan (1995). 50 years of liberation and understanding the library cul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Special Lecture at the 33rd National Library Congress. KLA Journal, 36(5), 13-32.
- Han, Sang-Wan (2000).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library and academic information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Bulletin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37(5), 3-29.
- Han, Sang-Wan, Kim, Tae-Soo, Chun, Hyun-Choon, & Lee, Sung-Chae (1996). A study on library policies and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89-123.
- Jeong, Bun-Hee (1993). A Study on a Scheme for Library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 Jeong, Yeon-Gyeong (2014). National Library of Korea(NLK)'s Response in Preparation for Librar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Jo, Hyeon-Seong, Lee, Sungwoo, Seong, munjeong, & Jeon, Youngsun (2020).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between South and North.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Jo, Wang-Geun (2007, April 18). The modernization project on the science library of Kim Il Sung University. Korean-German Library Conference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Learning from the German Experience』. The Korea Press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Seoul.
- Kim, Gwang-Jin (2007). Let's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cultural homogeneity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library field. KLA Journal, 48(10), 2-3.
- Lee, Du-Yeong (2000). First steps in the library fiel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LA Journal, 41(6), 43-47.
- Ministry of Unification (1994). National Community Reunification Plan. Available: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e of Unification Policy (1993). Cultural Agreement. Collection of East-West German Treaties and Agreements.
- Park, Mihyang (2017). A study on the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for the unified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317-340.
- Song, Seung-Seop (2020, November 10). Inter-Korean Exchanges in the Library Field: Past, Present, and Future.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Korea 2nd Library Policy Forum 2020 『The Era of Peace and Unification: Libraries Preparing for the Futur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Seoul.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9DPLRzn1okI>